

# 『논어필해』 역주 (1)

김주옥 \*

---

## 1. 서론

- 1) 『논어필해』 역주의 필요성
- 2) 『논어필해』의 판본 정리
- 3) 『논어필해』 역주의 구성 및 설명

## 2. 『논어필해』 해제

- 1) 『論語筆解』序(許勃序)
- 2) 『論語筆解』小序(鄭鄭序)
- 3) 『論語筆解』提要(『四庫全書』總目提要)

## 3. 『논어필해』 역주

- 1) 學而第一
  - 2) 爲政第二
  - 3) 八佾第三
- 

### ■ 국문요약

『논어필해』는 형식적인 면에서 한유와 이고가 서로 번갈아 대화하며 경문을 풀이하여, 경문 내용을 의심하고 고주를 반박하는 과정으로 『논어』를 풀어주는 주석서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논어필해』는 ‘성(性)’과 ‘도(道)’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이는 경학사적 맥락에서 송대 신유학의 서막을 여는 저서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가 『논어』를 풀이하면서 『맹자』와 『중용』을 인용하여 사서(四書) 내면의 뜻이 서로 융통하는 부분을 밝히는 경향도

---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 / E-mail: kimjuock@snu.ac.kr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어필해』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필자는 본고에서 『논어필해』의 역주를 통해 이 책의 주석상 특징과 경학사 흐름에서 『논어필해』의 지위를 살펴보고, 향후 논어학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의 경학 사상의 면모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또 한유의 사상세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논어』, 『논어필해』, 한유, 이고, 역주

## 1. 서론1)

### 1) 『논어필해』 역주의 필요성

당대에 이르러 통치자의 지원을 받으며 유학(儒學)이 매우 성행하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중당 이후,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존중하는 정책이 실시되자 유가 경학의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sup>3)</sup>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학의 학풍 역시 경문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자 자신의 견해로 풀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변화였다. 한유와 이고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한유와 이고의 『논어필해』 역시 이러한 시대적 산

---

1) 본 장의 내용은 필자가 본인의 석사학위논문 『『논어필해(論語筆解)』 연구』에서 요약한 것이다.

2) 당 태종(唐太宗)은 정관(貞觀) 14년의 조서(詔書)에서 “국자제주(國子祭酒) 아래부터 학생들까지 성적이 우수하고 근면한 자에게는 한 등급 높여주고, 각기 다른 비단을 하사하라”고 하였다. 경진 한 권 혹은 여러 경전에 능통한 학생들은 “모두 관직을 얻었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가볍게 공비(公費)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심하게는 퇴학 조치를 취하였으니, 이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유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唐明貴(2009), 『論語學史』, 240쪽.

물이라 할 수 있다.

『논어필해』에서 한유와 이고가 서로 번갈아 대화하며 『논어』에 대한 앞선 학자들의 해석의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하는가 하면 경문 내용을 의심하고 고주를 반박하는 과정으로 『논어』를 풀어주고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 『논어필해』는 ‘성(性)’과 ‘도(道)’의 개념으로 경문을 풀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한대의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과 다르며, 경학사적 맥락에서 송대 신유학의 서막을 여는 저서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가 『논어』를 풀이하면서 『맹자』와 『중용』을 인용하여 사서(四書) 내면의 뜻이 서로 융통하는 부분을 밝히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전에 대한 연구라는 경학의 역사에서, 『논어필해』는 한학에서 송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변화 양태를 보이는 중요한 저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국내에서 『논어필해』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sup>4)</sup> 역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어필해』에 대한 전문적 저서로 나온 것은 없고, 단지 경학사와 논어학 역사를 기술하는 저서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논어필해』에 대한 여러 편의 소논문이 있으나<sup>5)</sup>, 대체로 전통적으로 이 책의 특색으로 평가되는 몇 가지 특징만 반

---

4) 이기윤(1996)의 『『논어필해』의 해석학적 이해』는 국내 처음으로 『논어필해』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이기윤은 해석학(Hermeneutics)이라는 서구식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논어필해』를 분석하였다. 우선 해석학에 관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논어필해』에 적용한다. 그는 『논어필해』가 최초로 ‘해석학적 순환’의 방법을 통해 『논어』를 주석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논어필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지만 주로 해석방식에만 초점을 두었다.

5) 당지텐(唐繼添, 2010)은 한유와 이고가 “소불파주(疏不破注)”라는 전통적인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을 넘어서, 주소의 내용을 버리고 경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舍傳求經]을 채택한 것이 『논어필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색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지텐(唐繼添, 2012)은 『논어필해』가 직관적인 말과 날카로운 언사를 『논어필해』가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징으로 논하였다. 황아이핑(黃愛平, 2008)은 한유와

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한유는 당대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일찍이 유가 도통설(道統說)을 제창하여 맹자의 지위를 높이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상 내용은 후대 이학가(理學家)들이 수용하고 발전시켰다.<sup>6)</sup> 그럼에도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유의 시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경학적 사상이나 이고와 함께 『논어필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논어필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음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시도하는 『논어필해』 역주는 『논어필해』의 해석을 통해 이 책의 내용과 경학사 흐름에서 『논어필해』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향후 논어학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의 경학사상의 면모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또 한유의 사상세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논어필해』의 판본 정리

당대 이후의 여러 서목(書目)에서 수록한 『논어필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표1-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이고가 마음으로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以心解經)을 사용하여 이전 학자들과 다르게 『논어』 경문을 주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논어필해』가 한유와 이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경문의 해석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6) 唐明貴(2009), 『論語學史』, 255쪽.

시대	서목	저자	수록상황	판본
宋	『新唐書·藝文誌』	歐陽修 等	韓愈註論語十卷	
	『田氏書目』 <sup>7)</sup>	田鎬	韓愈論語十卷; 筆解兩卷	
	『郡齋讀書志』	晁公武	韓李論語筆解十卷, 右唐韓愈退之李翱習之撰	許勃序本
	『通志二十略·藝文略』	鄭樵	論語十卷, 韓愈; 論語筆解二卷, 韓愈	
	『玉海』	王應麟	書目二十卷, 韓愈撰	許勃序本
	『遂初堂書目』	尤袤	韓文公論語筆解	
元	『直齋書錄解題』	陳振孫	論語筆解二卷, 唐韓愈退之, 李翱習之撰	王存序本(得於錢塘汪允)
	『文獻通考』	馬端臨	韓李論語筆解十卷	收錄許勃序, 王存序
明	『宋史·藝文誌』	脫脫 等	韓愈筆解二卷	
	『唐宋叢書』	鐘人傑, 張淦辰	論語筆解, 唐韓愈著	
清	『讀書敏求記』	錢曾	論語筆解十卷	許勃序本
	『四庫全書·經部』	紀昀 等	論語筆解二卷	明范欽從許勃序本 傳刻
	『皕宋樓藏書志』	陸心源	論語筆解二卷	許勃序, 明刊本
現	『中國古籍善本書目』	王重民	① 論語筆解二卷, 唐韓愈, 李翱撰	清乾隆四十二年吳氏古歡堂抄本, 清吳翌鳳跋
			② 論語筆解二卷, 唐韓愈, 李翱撰	清抄本

〈표 1-1〉

볼 수 있듯이 『논어필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전씨서목(田氏書目)』에서 보이며 책 제목에 있어서 10권으로 된 『논어주』<sup>8)</sup>와 2권으로

7) “앞에 비서승 허발이 서문에서 말하였다. 한유와 이고가 서로 강론하면서 이 책을 완성하였다. 당나라 사람이 경을 통하는 자가 드물어 오직 두 사람이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四庫』와 『邯鄲書目』에 모두 없고, 오직 『田氏書目』에만 한유의 『논어』 10권과 『필해』 2권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이 『필해』로 되어있지만 10권본과 다르다. (前有秘書丞許勃序云韓李相與講論, 共成此書. 按唐人通經者寡, 獨兩公名冠一代. 蓋以此. 然『四庫』『邯鄲書目』皆無之, 獨『田氏書目』有韓愈『論語』十卷, 『筆解』兩卷. 此書題曰『筆解』, 而十卷亦不同.)” 『郡齋讀書志卷四·論語類經解類·小學類』

8) “韓愈註論語”는 한유가 주해한 『논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여기서 이를 『논어필해』와 구별하기 위해 『논어주』로 부른다.

된 『논어필해』 두 가지로 전하고 있다. 또한 『전씨서목』과 『통지(通志)』에서는 10권본과 2권본 두 가지 판본으로 기록하고 있고, 송나라 사람 송함(宋咸)이 이를 두 가지 책으로 논하고 있으니<sup>9)</sup>, 필자는 『논어주』와 『논어필해』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한 『논어필해제요(論語筆解提要)』에 의하면<sup>10)</sup> 한유가 일찍이 『논어』를 주해하였는데, 이는 10권으로 된 『논어주』이며, 한유와 이고가 서로 『논어』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토론 내용은 2권으로 된 『논어필해』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논어주』와 『논어필해』가 각각의 두 가지 책이라면 왜 『논어필해』의 분량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먼저 지금 현존한 『논어필해』의 판본을 살펴보도록 한다.

시대	서목	저자	수록상황	판본
宋	『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遺文卷第二』	文謙註, 王儔補註	論語筆解上 昌黎韓愈, 趙郡李翱	
明	『范氏二十一種奇書·論語筆解』	范欽	論語筆解上 昌黎韓愈, 趙郡李翱著, 四明范欽訂	秘書丞許勃序
	『百陵學山』	王文祿	論語筆解一卷,	

9) 송함(宋咸)은 『증주논어(增註論語)』 서문에서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고, 『필해』를 썼는데 대부분 선유의 뜻을 절취하고 문사를 옮겼다. 그래서 그 중의 한 권을 택해 고주에 넣을지 말지 아직 논증하여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宋咸『增註論語』十卷序云: “韓愈註論語與筆解, 大概多竊先儒義而遷易其辭, 因擇一書是否並舊註未安辯正焉.”) 『玉海藝文校証』, 309쪽.

10) 의심컨대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였을 때 아마도 먼저 책 위에 기록한 바가 있었고, 이고가 또한 그 사이에 토론한 내용을 책 사이에 붙였다. 책이 완성한 뒤 후대 사람이 그의 초고를 얻어 한유가 주해한 『논어』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채택하여 두 권으로 별도 기록하여 전하였다.(疑愈註論語時, 或先於簡端有所記錄, 翱亦間相討論, 附書其間. 迨書成之後, 後人得其稿本, 採註中所未載者別錄爲二卷行之.)

시대	서목	저자	수록상황	판본
			昌黎韓愈, 趙郡李翱	
	『說郛』	陶宗儀		
清	『四庫全書·經部』	紀昀 等	論語筆解二卷	明范欽從許勃序本傳刻
	『藝海珠塵·絲集』	吳省蘭 輯, 秦承業 等校		
	『墨海金壺·經部』	張海鵬 校訂	唐韓愈李翱撰	
	『古經解彙函』	鐘謙鈞 輯	唐 韓愈 李翱 同註	南匯吳氏藝海珠塵本, 論語筆解小序(鄭颺)
民國	『無求備齋論語集成』	伊東龜年 撰; 嚴靈峰 編輯	論語筆解考	
日本	『韓文公論語筆解』	伊東龜年 校刻	論語筆解二卷 唐 南陽 韓愈著, 日本東都東龜年 校正	東都東龜年序跋

〈표1-2〉

지금 현존한 판본과 서목을 정리해서 보면 『논어필해』의 판본은 주로 허발서문본(許勃序文本)과 왕존서문본(王存序文本)이다.

허발이 그의 서문에서 “한유가 『논어필해』 10권을 썼다. …… 내가 여러 판본들을 대조하고 정리하여 그 중 제일 좋은 것으로 얻었다”<sup>11)</sup>라고 하였다. 또 그 뒤로 서목에서 기록한 바에 의하면 허발서문본은 주로 10권본인 『논어필해』이다. 이로 인해 필자가 『논어필해』 10권본은 아마도 허발이 『논어필해』와 『논어주』를 정리하면서 10권본인 『논어필해』로 편찬한 것으로 추론한다.

그 뒤로 명대(明代) 사람 범흠(范欽)이 허발서문본에 의해 원래 10권으로 된 『논어필해』를 상하로 나뉜 2권으로 정(訂)하였다. 이는 아마도 처음으로 교정한 『논어필해』의 판본일 수 있다. 지금 전한 『사고전서(四庫全書)』본도 범흠본에 의해 판각한 것이다.<sup>12)</sup> 위의 판본 중에서 허발

11) “昌黎文公著筆解論語一十卷……予繕校舊本數家，得其純粹。”

12) “이 판본은 명대 범흠이 허발 서문본을 따른 판본을 판각한 판본이다. 此本爲明范欽

서문본 계통에 속한 것을 정리하면 『范氏二十一種奇書』, 『四庫全書·經部』, 『墨海金壺·經部』, 『藝海珠塵·絲部』, 『說郛』, 『古經解彙函』, 『百陵學山』이 있다.

허발서문본 외에 또 왕존(王存)이 서문을 단 판본이 있다. 이는 처음에는 전진손(陳振孫)이 편찬한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에서 보이며 권수는 2권이다. 왕존서문본에 대해서는 왕무(王楙)의 『야객총서(野客叢書)』에서도 다음과 같이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최근에 전당(錢塘) 왕충(汪充)의 집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왕존(王存)이 회계(會稽)에서 판각하였고 『군재(郡齋)』의 서목에는 『한문공논어필해』로 기록되어 있었다. 「학이」 편부터 「요왈」 편까지의 20편은 한문공이 이고와 함께 경문의 뜻을 밝혀서 공안국의 주(註)를 깨뜨렸다.<sup>13)</sup>

그렇다면 이 당시에 왕존서문본도 문인 사이에 유통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시기를 고려하여 분석해보면 허발은 1022~1063년 때에 활동한 학자이고, 왕존은 1085~1100년에 활동한 학자이다. 왕존서문본이 허발서문본보다 후에 출간하였고, 또 분량도 2권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허발서문본과는 다른 계통인 『논어필해』로 볼 수 있다.

또한 1권으로 된 『논어필해』는 『논어필해』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를 발췌하여 모은 것으로 명대부터 출현하였다. 명대 학자들은 책의 일부 내용을 선정하여 총서로 만드는 풍조가 있었는데, 『논어필해』 1권본은 이 학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從許勃本傳刻。”『四庫全書』

13) “近時錢塘汪充家有是本，王公存刊於會稽，郡齋目曰韓文公論語筆解。自學而至堯曰二十篇，文公與李翱指擿大義，以破孔氏之註……”

한편 출간 시간으로 봤을 때 베이징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신간경진상주창려선생문집(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文集)』에 『논어필해』 2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현재 전하는 가장 이른 『논어필해』 판본일 것이다.<sup>15)</sup> 『신간경진상주창려선생문집』 서문을 보면 이는 남송(南宋) 효종(孝宗) 건도(乾道) 2년 즉, 1166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천(四川)지역에서 판각한 것이기 때문에<sup>16)</sup> 이하에서는 이 판본을 송촉각본(宋蜀刻本)으로 부르도록 한다.

그 외에 일본에서도 유통한 판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토 구넨(伊東龜年)이 교각(校刻)하고 서문을 단 판본<sup>17)</sup>이다. 일본에서 전한 판본이기에 아래에선 화각본(和刻本)으로 부르도록 한다. 이 판본의 유래에 대해 이토 구넨이 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나의 벗 임이녕(林以寧)의 집에 조선 활자본이 있었는데 제목이 『한문공논어필해(韓文公論語筆解)』로 되어있다. 지금 볼 수 있는 여러 판본들보다 더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문집에 경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적합한 부분이 많으니 어찌 진짜 판본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필사하고 보관하였다. 그 후 임이녕 집에 재난을 당해 그 책이 잃어버려 진귀한 것으로 되어 정말로 슬프도다!<sup>18)</sup>

위의 서문을 보면 이토 구넨이 일찍이 임이녕<sup>19)</sup>에서 조선 활자본을 얻어 필사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임이녕 집안의 재난으로 원본을 잃

14) 金培懿(2010), 164-165쪽 참조.

15) 陽國安(2017), 86쪽.

16) 陳杏珍(1992), 164쪽.

17) 唐韓愈 著, 日本伊東龜年 校正, 『韓文公論語筆解』, 日本昭和八年刻本.

18) “吾友林以寧家有朝鮮活版本, 題曰韓文公論語筆解, 方見行諸本尤爲備, 且與集中說經合者尙多, 有豈非眞本邪, 余嘗寫而藏之, 已而以寧罹災失其書, 尋爲異物, 悲夫.”

19) “임이녕은 1655년에 태어나 1679년에 아버지 임륜(林綸)이 투옥되면서 그의 오라버니인 림이외(林以畏)의 사망으로 조난을 당한 처지이다.” 李藝(2018), 14쪽.

어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토 구넨이 쓴 서문의 낙관을 보면 보력 11년(寶曆十一年) 즉, 1762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각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책은 마땅히 한유가 이고와 서로 토론하고 강습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그 사이에 적어 둔 것이다. 그러나 습지(習之)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 한유와 이고가 같이 편찬하였다고 잘못 이해하였다. 사실은 한유가 혼자 편찬한 것이다.<sup>20)</sup>

이에 알 수 있듯이 이토 구넨이 처음 임이녕 집에서 본 판본은 한유와 이고의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판본인데, 이토 구넨이 이 책은 한유가 혼자 편찬한 것으로 보아 이토 구넨이 『논어필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고의 말을 필사하지 않고 오직 한유의 말만 필사하였다. 그래서 지금 전한 화각본에서는 한유가 주해한 내용만 남아있다. 그러나 화각본은 한유의 말만 수록하였지만 ‘韓曰’에서 ‘習之深乎哉’라는 말은 여전히 같이 수록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논어필해』의 판본 계통을 정리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 ① 허발서문본(許勃序本)
- ② 왕존서문본(王存序本)
- ③ 화각본(和刻本)

또 이 세 가지 계통에 속한 지금까지 전한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 “茲書者，是文公當與習之輩商論講習間，言而涉筆者也。但以其有稱習之者，謬爲韓李撰，實獨公所著。”

許物序本	『范氏二十一種奇書』, 『四庫全書·經部』, 『墨海金壺·經部』, 『藝海珠塵·絲部』, 『說郛』, 『古經解集函』, 『百陵學山』
王存序本	전한 판본 없음
和刻本	『韓文公論語筆解』

〈표1-3〉

### 3) 『논어필해』 역주의 구성 및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논어필해』는 역대로 여러 판본이 있는데, 본고는 1991년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출판된 총서집성초편(叢書集成初編)의 『논어필해』를 저본으로 삼되, 앞서 언급한 화각본과 『신간경진상주 창려선생문집』을 참고하여 이체자(異體字)가 있는 부분을 필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자를 채택하여 교감하였다.

『논어필해』원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한유와 이고가 해석하고자 하는 경문을 선정하고, 그 다음은 고주의 내용을 인용한다. 이어서 한유가 경문에 대해 자기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은 이고가 상세한 증거를 논하거나 혹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유의 견해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경문의 해석을 풀이한다. 한유와 이고의 말은 ‘韓曰’, ‘李曰’로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본고에서 필자는 먼저 『논어필해』의 원문과 고주를 나열하고, 우리말로 된 해설을 다음으로 둔다. 『논어』 경문에 대한 번역은 한유와 이고의 견해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그 다음은 한유와 이고의 해석이며, 마지막으로 필자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이다. ‘해설’ 부분에는 먼저 구절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음에 구절 전체의 특징을 설명한다.

## 2. 『논어필해』 제요

### 1) 『論語筆解』序(許勃序)

▷昌黎文公著筆解論語一十卷，其間鞞曰者蓋李習之同與切磨，世所傳習，率多誤舛，始愈筆大義則示鞞，鞞從而交相明辨，非獨韓制此書也。

한유가 『논어필해』 10권을 저술하였다. 책 사이에 ‘鞞曰’로 되어있는 것은 대개 이고가 한유와 더불어 절차탁마한 것이다. 세상에 전하고 배우는데 틀린 것들이 많아 처음에 한유가 대의를 써서 이고에게 보여주었다. 이고는 그 뒤로 한유와 서로 번갈아 뜻을 명백히 판별하였기에 한유가 혼자서 이 책을 지은 것이 아니다.

▷噫，齊魯之門人所記善言既有同異，漢魏學者注集繁闕，罕造其精，今觀韓李二學，勤拳淵微，可謂窺聖人之堂奧矣，豈章句之技所可究極其旨哉，予繕校舊本數家，得其純粹，欲以廣博，故序以發之。

아! 제노(齊魯)의 문인이 기록한 좋은 말들은 이미 서로 차이가 나고,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학자들이 주해한 문집은 많았으나 정묘함에 도달한 자가 드물다. 지금 한유와 이고의 학문을 살펴보면 성실하고 진지하며 깊고 오묘하여 성인의 심오한 이치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어찌 장구의 기법으로 그의 뜻을 탐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러 판본들을 대조하고 정리하여 그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얻어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서문을 써서 이를 밝힌다.

### 2) 『論語筆解』小序(鄭昴序)

▷夫文之至者，必究觀乎其本，本苟不立，枝將安附，昌黎文起八代之

衰, 李習之一時齊名. 讀論語筆解, 始知其原, 聖人既往, 微言猶存, 參而究之, 若破堅壁, 亦何妨互有出入. 乃其得處, 已如見聖人之心於千百載之上矣. 予恥夫讀韓文者之不究其原也. 爲之點而傳之. 時天啓甲子七月之望, 峯陽鄭鄴敬題.

무릇 문장의 지극함은 반드시 그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있다. 근본이 만약 세우지 않으면 가지는 어디에 붙을 것인가. 한유는 문장으로 팔대의 쇠락한 문풍을 일으켰고, 이고는 그 당시에 한유와 이름이 나란히 했다. 『논어필해』를 읽고서야 비로소 그의 근원을 알았으니, 성인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심오한 말은 아직 남아있다. 그를 탐구하고 궁리하면 마치 견고한 벽을 부수는 것과 같아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또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책의 내용을 얻는 것이 마치 천백 년 전의 성인의 마음을 만나는 것과 같다. 나는 한유의 글을 읽은 사람이 한유의 근본을 탐구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 그들을 위해 표점을 찍어 전한다. 천계년간 갑자년 7월 15일, 밀양 정만이 삼가 적는다.

### 3) 『論語筆解』提要(『四庫全書』總目提要)

- ▷ 論語筆解二卷, 舊本題唐韓愈李翱同注, 中間所注以韓曰李曰爲別. 『논어필해』 2권, 옛 판본에서 당나라 한유와 이고가 같이 주석하였다고 적혀있다. 중간에 『논어』에 대한 주석은 ‘한왈’, ‘이왈’로 구별한다.
- ▷ 張籍集祭韓愈詩, 有論語未訖註, 手迹今微茫句. 邵博聞見後錄遂引爲論語注未成之證. 而李漢作韓愈集序, 則稱有論語注十卷, 與籍詩異. 王楙野客叢書又引爲已成之證. 晁公武讀書志稱四庫邯鄲書目皆無之, 獨田氏書目有韓氏論語十卷, 筆解兩卷. 是論語注外別出筆解矣. 新唐書藝文志載, 愈論語注十卷, 亦無筆解. 惟鄭樵通志著錄二卷, 與今本同. 意其書

出於北宋之末.

장적(張籍)의 「제한유시(祭韓愈詩)」에서 “『논어』에 대한 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지금 쓴 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邵博이 『소씨 문견후록(邵氏聞見後錄)』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여 『논어』주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한은 『한창려전집(韓昌黎全集)』 서문을 작성하면서 한유가 『논어』 10권을 주해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장적의 「제한유시」의 기록과 다르다. 왕무(王楙)가 『야객총서(野客叢書)』에서도 이한의 글을 인용하여 한유가 『논어』 주해를 완성하였다는 증거로 삼는다. 조공무(晁公武)가 그의 『독서지(讀書志)』에서 『사고전서(四庫全書)』와 『감단서목(邯鄲書目)』에 모두 안 보이고 오직 『전씨서목(田氏書目)』에서만 한유의 『논어』 10권과 『필해』 2권이 있다고 적혔다. 이는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는 것 외에 따로 『필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이다.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서 “한유가 『논어』 10권을 주해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여기도 『필해』에 대한 기록이 없다. 오직 정초(鄭樵)가 『통지(通志)』에서 2권이 있다는 것을 수록하였으며 지금 판본과 같다. 이는 『논어필해』가 북송 말기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 然唐李匡乂宣宗大中時人也，所作資暇集一條云，論語宰予晝寢，梁武讀爲寢室之寢，晝作胡卦反，且云當爲晝字，言其繪晝寢室。今人罕知其由，咸以爲韓文公所訓解。又一條云傷人乎不問馬，今亦謂韓文公讀不爲否。然則大中之前已有此本，未可謂爲宋人僞撰。且晝寢一條今本有之，廐焚一條今本不載。使作僞者剽掇此文，不應兩條相連摭其一而遺其一，又未可謂因此依託也。

그러나 당대 이광예(李匡乂)는 선종(宣宗) 대중(大中) 시기 사람인데, 그가 지은 『자가집(資暇集)』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논

어』의 ‘宰予晝寢’장에 대해 양 오제(梁武帝)가 ‘침(寢)’을 ‘침실’의 ‘침’으로 읽었고, ‘주(晝)’를 ‘호괘(胡卦)’의 반절로 읽었으며, 또 마땅히 ‘화(晝)’자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침실을 꾸민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사람은 그의 이유를 아는 자가 드물고 모두 한유가 주해하였다고 여긴다. 또 ‘상인호불문마(傷人乎不問馬)’ 대목에 있어서 한유는 ‘不’를 ‘否’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중 시기부터 이미 이 책이 있었으니, 송대 사람의 위작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주침(晝寢)’ 장(章)은 지금 전하고 있는 판본에 있지만, ‘구분(廐焚)’ 장은 지금 전하고 있는 판본에 실려 있지 않다. 위조하는 사람이 이 문장을 적어놓을 때 두 조목이 이어져 하나만 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택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 또 이로써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以意推之，疑愈注論語時，或先於簡端有所記錄，輒亦間相討論附書其間，迨書成之後，後人得其稿本，採注中所未載者，別錄爲二卷行之。

이 뜻으로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였을 때 어찌면 먼저 책 위에 기록한 바가 있었고, 이고가 또한 그 사이에 토론한 내용을 책 사이에 붙였다가 책이 완성한 뒤 후대 사람이 그의 초고를 얻어 한유가 주해한 가운데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가려 두 권으로 별도 기록하여 간행한 듯하다.

▷ 如程子有易傳，而遺書之中又別有論易諸條，朱子有詩傳，而朱鑑又爲詩傳遺說之例。題曰筆解，明非所自編也。

예컨대 정자(程子)가 『역(易)』을 저술하였지만 그의 유작 중에 『역(易)』에 대해 따로 논하는 대목들이 있고, 주자(朱子)가 『시(詩)』를 저술하였지만 주감(朱鑑)이 또한 『시』의 유설을 전한 예가 있다. 제목이 ‘필해’로 되어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 편찬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

▷ 其今本或有或無者，則由王存以前世無刊本，傳寫或有異同。邵博所

稱三月字作音一條，王楙所見本亦無之，則諸本互異之明證矣。王存本今未見，魏仲舉刻韓文五百家注，以此書附末，今傳本亦稀。

지금 전하고 있는 판본에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은 왕존(王存) 이전에 간행본이 없거나 필사할 때 혹 다른 점이 있어서이다. 소박(邵博)이 말한 ‘삼월자작음(三月字作音)’ 대목은 왕무가 보는 판본에는 없으니, 여러 판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왕존본은 지금 보이지 않고 위중거(魏仲舉)가 『한문오백가주(韓文五百家注)』를 판각하여 『논어필해』를 그 뒤로 수록하였으나 지금 전한 판본에 또한 보기 드물다.

▷ 此本爲明范欽從許勅本傳刻，前載勅序，仍稱筆解論語一十卷，疑字誤也。又趙希升讀書附志曰，其間翱曰者，李習之也。

이 판본은 명나라 범흠(范欽)이 허발본(許勅本)을 따라 판각한 것으로 앞에 허발의 서문이 실려 있다. 서문에 여전히 『필해논어』 10권으로 되어있는데 글자가 틀린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조희승(趙希升)이 그의 『독서부지(讀書附志)』에서 “중간에 쓰인 ‘고왈(翱曰)’은 이습지(李習之)이다”라고 적혔다.

▷ 明舊本愈不著名，而翱所說則題名以別之。此本改稱韓曰李曰，亦非其舊矣。

명나라 판본에서 한유의 이름을 쓰지 않았고, 이고가 말한 내용은 따로 이름을 써서 구별했다. 이 판본에서는 ‘한왈(韓曰)’, ‘이왈(李曰)’로 고쳐 놓았으며, 그 전의 판본이 아니다.

▶ [해설] 제요 부분에서 『논어필해』의 유통과정과 진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요의 내용을 보면 『논어주』와 『논어필해』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책이다. 한유가 일찍이 『논어』를 주해한 적이 있었고, 주해한 책은 『논

어주』로 불렸다. 나중에 이고 혹은 후대 사람들이 한유와 이고가 서로 토론한 내용을 『논어필해』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논어필해』 역주

#### 1) 學而第一

○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유자가 말하였다. 약속이 올바른 도리에 가까워야 그 약속한 말을 따져볼 수 있다.

[1] 馬曰[2]其言可反覆, 故曰近義.

마용: 그 말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에 가깝다고 한다.

[1] 『논어집해』에서 누군지 언급되어있지 않다.

[2] 『논어주소』에서 ‘以’자가 더 들어가 ‘以其言可反覆’로 되어있다.

韓曰, ①反本要終謂之復, 言行合宜, 終復乎信, 否則小信未②孚, 非反覆不定之謂.

한유: 근본으로 돌아가 결과를 따지는 것을 ‘복(復)’라고 한다. 말하는 것과 행위가 마땅히 하게 되면 결국 약속을 쫓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약속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반복하여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李曰, ③尾生之信, 非義也. 若要終合宜, 必不抱橋④徒死, 馬云反覆, 失其旨矣.

이고: 미생의 약속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만약 결과를 따져 마땅하게 했다면 필히 다리 기둥을 안아서 헛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옹이 말한 ‘반복(反覆)’은 그 요지를 잃었다.

① 反本要終

‘반본(反本)’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요(要)’는 ‘구하다’이다. 여기서 ‘반본요종(反本要終)’은 근본으로 돌아가 결과를 따지는 것을 뜻한다.

② 孚

‘부(孚)’는 ‘믿게 하다’이다.

③ 尾聲之信

노나라 사람 미생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주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미생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그녀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미생은 정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생이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큰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계속 퍼부었다. 어느새 빗물이 미생의 다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가 계속 내리자 결국 미생은 다리 기둥을 안고 있는 채로 익사하였다.

④ 徒死

‘도(徒)’는 ‘공연히’, ‘헛되이’이다. ‘도사(徒死)’는 헛되게 죽는 것이다.

○ 恭近於禮, 遠恥辱也.

공손함이 예에 가까워야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된다.

[1] 馬曰, 恭不合禮, 非禮也. 能遠恥辱, 故近禮.

마옹: 공손이 예에 맞지 않으면 예가 아니다. 치욕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에 가깝다.

[1] 『논어집해』에서 ‘包曰’로 되어있다.

韓曰, 禮, 恭之本也. 知恭而不知禮, 止遠辱而已. 謂恭必以禮爲本.

한유: 예는 공손함의 근본이다. 공손함을 알고 예를 모르는 것은 치욕을 멀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다. 공손함은 반드시 예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한다.

李曰, ①晉世子申生恭命而死. 君子謂之非禮. 若恭而不死, 則得禮矣.

이고: 진(晉)나라 세자 신생(申生)이 명을 받들다가 죽었다. 군자들은 이를 예가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 명을 받들면서도 죽지 않았다면 예를 얻은 것이다.

#### ① 晉世子申生恭命而死

신생(申生)은 진헌공(晉獻公)의 맏아들이고 어머니가 제강(齊姜)부인이다. 헌공이 그 당시 여희(驪姬)를 총애하여 여희가 그의 아들인 해제(奚齊)를 왕위에 세우고자 그녀가 헌공 앞에서 신생을 무함하였다. 헌공은 여희의 말을 믿고 신생을 죽이려고 하였다.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이 일을 알고 신생에게 “당신은 어찌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신생은 “아버지가 지금 여희를 많이 좋아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상심이 클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중이가 다시 “그럼 진나라를 떠나시오.”라고 간언을 하자, 신생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시해하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하에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도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결국 신생

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고, 후인들이 그를 ‘공세자(恭世子)’라고 칭하였다.

▶ [해설] 이 구절은 공(恭)과 예(禮)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고주에서는 공은 예에 맞지 않으면 예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한유는 예를 공의 근본으로 보고 공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예를 근본으로 해야 공을 이룰 수 있고 또 공 하나만 알고 예를 소홀히 하면 오직 치욕을 멀리함에 그친다. 이고는 공세자(恭世子) 신생(申生)이 진헌공(晉獻公)의 명을 받들다가 죽는 고사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공세자가 공손을 지키다가 치욕으로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고는 그의 죽음이 예가 아니라고 본다. 공세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공만 중요시하고, 예를 근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고는 한유의 말을 동의하고 전고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이 구절에 대해 “공손을 지극히 하면서 그 예절에 맞게 한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주희는 치욕을 멀리하려면 공과 예 모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한유와 이고의 공과 예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해설과 같은 맥락의 뜻으로 볼 수 있다.

○ 因不失其親，亦可宗也.

서로 관련이 있고 친근함을 잃지 않으면 또한 존경할 만하다.

孔曰，因，親也。所親不失其親，亦可宗敬。

공안국: ‘인(因)’은 친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친한 사람에게 나의 친애함을 잃지 않으면 이 또한 존경한 것이다.

韓曰, 因訓親, 非也. 孔失其義. 觀有若上陳信義恭禮之本, 下言凡學必因上禮義二說. 不失①親師之道, 則可尊矣.

한유: ‘인(因)’을 ‘친(親)’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공안국이 그 뜻을 잘못 안 것이다. 살펴보면대 유약이 위 구절에서 약속·의로움·공손함·예의의 근본에 대해 말하였으니, 아래 구절에는 무릇 배움에 있어 반드시 위의 예절·의로움 이 두 가지와 관련지어 말해야 할 것이다. 스승을 친애하는 도리를 잃지 않는다면 존경할 만하다.

李曰, 因之言相因也. 信義而復本, 禮因恭而遠嫌, 皆不可失, 斯迺可尊.

이교: ‘인(因)’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약속과 의로움으로 근본을 따져볼 수 있고, 예와 공손함은 서로 관련지어 싫어함을 멀리한다. 약속과 의로움과 공손함 그리고 예의를 모두 잃지 않아야 비로소 존경할 수 있다.

### ① 親師之道

‘친사(親師)’는 스승을 친애하는 것을 뜻한다. ‘친사지도(親師之道)’는 스승을 친애하는 도이다.

▶ [해설] 공안국은 ‘인(因)’을 ‘친(親)’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유는 공안국의 설을 부정하여 설명한다. 한유는 이 구절 앞부분에 신(信)·의(義)·공(恭)·예(禮)에 대한 내용을 논했기 때문에 아래 구절에서는 반드시 예와 의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교는 한유의 설에 동의하며 ‘인(因)’을 ‘서로 관련이 있다’로 해석한다. 그는 앞서 얘기한 신의와 예와 공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 한유와 이교가 공안국의 설을 부정하며, 고주와 다른 견해

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논어필해』가 경문을 해석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 子曰,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공자: 일을 행하는 데는 민첩하게 하고, 말을 하는데 삼가고, 올바른 도에 대해 묻는다면, 이야말로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만하다.

孔曰, 敏, 疾也. 有道, 有道德者, 正謂問事是非.

공안국: ‘민(敏)’은 빠르다는 뜻이다. ‘유도(有道)’는 덕을 갖추어 있는 사람이다. ‘정(正)’은 일의 시비를 묻는다는 것이다.

韓曰, 正謂問道, 非問事也. 上句言事, 下句言道. 孔不分釋之. 則事與道混而無別矣.

한유: ‘정(正)’은 도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 것이지 일에 대해 묻는 말이 아니다. 위 구절에서 일에 대해 논술하고, 아래 구절에는 도에 대해 논술하는데 공안국이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일과 도를 섞여 구별되지 않았다.

李曰, 凡人事政事, 皆謂之①事迹. 若道則聖賢德行, 非②記誦文辭之學而已. 孔子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此稱為好學. 孔云問事是非, 蓋得其近者小者, 失其大端.

이고: 무릇 ‘인사’와 ‘정사’ 하는 것은 모두 일의 자취라고 한다. 도를 말하자면 성현의 덕행을 말하는 것이지 문장을 짓는 배움만은 아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안회는 배우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잘못을 거듭 범하지 않는다.” 이를 배움을 좋아한다고 부른다. 공안국이 “일의 시비를 묻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저 가깝고 세부적인 것을

얻었을 뿐 그 큰 단서를 잃은 것이다.

① 事迹

‘사적(事迹)’은 ‘일의 자취’이다.

② 記誦文辭

‘기송문사(記誦文辭)’는 문장을 외우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다.

▶ [해설] 공안국이 ‘정(正)’은 일의 시비를 묻는다는 것으로 보는데 한유는 “일이 아니라 도에 대해 묻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앞 문장에 나온 “敏於事而慎於言” 장에서 이미 일에 대해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경문에 나온 “就有道而正焉”은 도에 대해 묻는 것으로 설명하며, 공안국이 일(事)과 도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해석하였다고 고주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고는 한유의 말에 동의하며 도는 성인의 덕행을 가리킨 것이지 문장을 짓는 배움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고주에 “시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그저 세부적인 것만 얻을 것일 뿐, 도가 아니라고 하여 공안국이 그 요점을 잃었다고 부정한다. 또한 이고는 안희의 예를 들어 ‘호학(好學)’에 대해 설명하였다. 안희처럼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잘못을 거듭 범하지 않는 것이 성현의 덕행임을 강조하였다.

2) 爲政第二

○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공자: 삼백여 편인 『시경』의 시를 한 마디로 단정한다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包曰, 蔽猶當也. [1]又曰, 歸於正也.

포함: ‘폐(蔽)’는 ‘해당하다’와 같다. 또한 (‘사무사(思無邪)’라는 것은) 정(正)으로 돌아옴이다.

[1] ‘又曰’은 포함이 설명하는 말을 가리킨다.

韓曰, 蔽猶斷也. 包以蔽爲當, 非也. 按思無邪, 是魯頌之辭, 仲尼言詩最深義, 而包釋之略矣.

한유: 폐(蔽)는 마치 단정하다는 뜻이다. 포함이 폐(蔽)를 해당하다(當)로 해석하였는데 틀렸다. 생각건대 ‘사무사(思無邪)’는 「노송(魯頌)」의 내용이다. 공자는 『시』의 가장 심오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 포함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간략하다.

李曰, 詩三百篇, 斷在一言, 終於頌而已. 子夏曰, ①發乎情, 民之性也. 故詩始於風. ②止乎禮義, 先王之澤也. 故終無邪一言, 詩之斷也. 慮門人學詩, 徒誦三百之多, 而不知一言之斷, 故云然爾.

이고: 『시』가 삼백 편이나 되지만 한마디로 단정하면 결국 송(頌)에 그칠 뿐이다. 자하(子夏)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시』가 풍(風)에서 시작하였다. “예(禮)와 의(義)에 그치는 것은 선왕의 은택이다.” 그래서 ‘무사(無邪)’ 한마디로 끝내는 것은 『시』를 단정하는 것이다. 문인들이 『시』를 공부하는데 공연히 삼백여 편이나 암송하나, 한 마디로 단정하는 말을 모를 것을 염려하여 이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① 發乎情, 民之性也.

『모시(毛詩)』 서문의 구절이다.

②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모시(毛詩)』 서문의 구절이다.

▶ [해설] 포함은 ‘폐’를 ‘해당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한유는 고주를 부정하여 ‘폐’를 ‘단정하다’라고 해석한다. 한유는 공자가 ‘사무사’로 『시』를 단정하였고, 또 공자가 『시』의 가장 심오한 뜻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유는 포함이 ‘폐’를 ‘해당하다’로 풀이하는 것이 간략하다고 생각한다.

이고는 한유의 해석에 동의하며 『시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그는 공자가 『시』를 공부하는 문인에게 삼백여 편이나 되는 『시』를 암송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사’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였다고 해석한다.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이 구절에 대해 ‘蔽猶蓋也’라고 적었으며, ‘폐’를 ‘덮음(蓋)’으로 해석한다. 주자는 “공자께서 『시』 3백 편을 오직 이 한마디 말이 충분히 그 뜻을 다 덮을 수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유와 이고가 『시경』의 시를 한 마디로 단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뜻으로 볼 수 있다.

○ 子曰, 吾五十而知天命.

공자: 쉰 살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孔曰, 知天命之終始.

공안국: 천명의 끝과 시작을 아는 것이다.

韓曰, 天命深微①至赜, 非原始要終一端而已. 仲尼五十學易, ②窮理盡

性, 以至於命, 故曰知天命.

한유: 천명이 심오하고 오묘하여 사물 발전의 기원과 결과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끝내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된 살이 되어서 『역』을 배워 사물의 이치를 탐구여 명에 이르렀기에 '지천명'이라고 하였다.

李曰, ③天命之謂性, 易者, 理性之書也. 先儒失其傳, 惟孟軻得仲尼之蘊. 故盡心章云, 盡其心所以知性, 知性所以知天. 此天命極至之說. 諸子罕④造其微.

이고: 천명은 성이라고 한다. 『역』은 이치와 본성을 다루는 책이다. 선유들은 『역』을 전하는 것을 잃었으나 오직 맹자가 공자의 깊이 있는 업적을 이어받았기에 이에 『맹자』 「진심」 편에 “그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그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대하여도 알 수 있게 된다.”라 하였다. 이는 천명이 지극하다는 설이다. 여러 학파 중에 그 심오함에 이르는 자가 드물다.

① 至蹟

‘지색(至蹟)’은 심오하고 오묘한 도리이다.

② 窮理盡性, 以至於命

이는 『주역』 「설괴전(說卦傳)」에서 나온 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명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③ 天命之謂性

『중용』 첫 구절의 내용 즉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④ 造

‘조(造)’는 ‘이르다’이다.

▶ [해설] 한유는 공자가 쉰 살이 되어서 『역』을 배워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쉰 살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고는 한유의 말에 동의하고 이어서 『맹자』 「진심」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마음을 다하면 ‘성’을 알 수 있고, ‘성’을 알게 되면 하늘에 대하여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명’과 ‘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성’에 대한 이해로 『논어』 경문을 풀어주는 경향이 보인다. 이장에서 『맹자』의 내용을 언급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시기 주석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또 이 대목에서 한유와 이고는 ‘천명’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성’을 주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해석학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이르러 주희가 이에 영향을 받아 『사서집주(四書集注)』에서 본격적으로 ‘성’에 대해 언급하고 경문을 풀이한다. 『집주』에서 정자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는 “知天命窮理盡性也”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논어필해』가 후대에 영향을 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리학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예순 살이 되어서는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순응하고, 일흔에는 마음의 하고자 하는 대로 하더라도 법도에 어기지 않는다.

鄭曰, 耳聞其言, 知其微旨也。馬曰, 矩, 法也。從心所欲無非法。

정현: 귀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의 은미한 뜻을 알 수 있다. 마용: ‘규(矩)’는 법도의 뜻이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가 아님이 없다.

韓曰, 耳當爲爾, 猶言如此也。既知天命, 又如此順天也。

한유: ‘이(耳)’는 마땅히 ‘이(爾)’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를 말하는 것과 같다. 천명을 알게 되었으니, 또한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순응한다는 말이다.

李曰, ①上聖既順天命, 豈待七十不踰矩法哉. 蓋孔子興言時已七十矣. 是②自衛反魯之時也. 刪修禮樂詩書, 皆本天命而作, 如其順.

이고: 덕행과 지혜가 지극히 높은 성인은 이미 천명을 순응하였으니, 어찌 일흔까지 기다려서야 법도를 어기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공자가 그 말을 하는 시기가 이미 일흔이었을 것이며 이때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가는 시기였을 것이다. 『예』·『악』·『시』·『서』를 산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모두 천명을 근본하여 지은 것이 마치 천명을 따른 것과 같다.

① 上聖

덕행과 지혜가 지극히 높은 성인

② 自衛反魯之時

공자가 14년의 주유천하를 끝난 뒤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시기를 가리킨다.

▶ [해설] 한유는 ‘耳’자는 마땅히 ‘爾’자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로 해석한다. 앞 문장에서 오십이 되면 천명을 알았으니, 이로써 하늘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고 한다. 이고는 한유의 말을 동의하며 공자가 이 말을 한 시기는 그가 주유천하를 한 뒤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해석하며, 그 때 공자는 일흔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공자가 『예』·『악』·『시』·『서』를 산정하는 것은 모두 천명을 받아서 하늘의

명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서도 한유가 경문의 글자를 고쳐서 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이며, 이를 통해 『논어』의 색다른 견해들을 볼 수 있다.

○ 子曰，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

공자: 옛날의 도를 알려주고 자기의 새로운 뜻을 알아간다면,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있다.

子曰，溫，尋也。尋〔1〕釋故者，又知新者，可以爲師矣.

공안국: ‘온(溫)’은 거듭이다. 예전에 배운 것을 거듭 연구해 뜻을 찾고 또 새로운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1〕 『논어주소』에 “釋”자가 “釋”자로 되어있다.

韓曰，先儒皆謂尋釋①文翰。由故及新，此②記問之學，不足爲人師也。吾謂故者，古之道也。新謂己之新意可爲師法。

한유: 선유들이 모두 문장을 거듭 연구한다고 말하였다. 옛것을 말미암아 새로운 것에 미치는 것이니, 다만 책에서 나온 것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학문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에 부족하다. 내가 생각하기를 고(故)는 옛날의 도이며 신(新)은 자기의 새로운 뜻으로 사범이 될 만한 것이다.

李曰，仲尼稱子貢云，告諸往而知來者，此與溫故知新義同。孔謂尋釋文翰則非。

이고: 공자가 자공한테 칭찬하여 말하였다. “지나간 것을 알려주니 앞

으로 올 것까지 안다.” 이는 ‘온고지신(溫故知新)’과 같은 뜻이다. 공안국이 문장을 거듭 연구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 못 되었다.

① 文翰

‘문한(文翰)’은 문장이다.

② 記問之學

‘기문지학(記問之學)’은 문장을 외우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다.

▶ [해설] 이 대목에서 스승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공안국은 ‘溫故而知新’을 “거듭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로 해석한다. 한유는 거듭 연구하는 것은 암기하는 학문에 불과하다고 고주를 부정하였다. 그는 고(故)는 옛날의 도이고, 신(新)은 자기의 새로운 뜻으로 풀이한다. 이고는 이어서 『논어』 「학이」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며 한유의 해석에 동의한다.

○ 子曰, 君子不器.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 而後從之.

공자: 군자는 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실천하고 난 이후에야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다.

孔曰, 疾小人多言而行(1)不周.

공안국: 말만 많고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소인을 미워하는 것이다.

[1] 『논어집해』에서 ‘-’자가 더 들어가 ‘疾小人多言而行之不周’로 되어있다.

韓曰, 上文君子不器, 與下文子貢問君子, 是一段義. 孔失其旨. 反謂疾小人, 有戾於義.

한유: 앞 문장의 ‘군자불기(君子不器)’와 아래 문장의 ‘자공문군자(子貢問君子)’는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공안국이 그 요지를 잃었다. 반대로 “소인을 미워하다”를 말하는 것은 올바른 뜻에 어긋난다.

李曰, 子貢, 門人上科也. 自謂通才可以不器. 故聞仲尼此言而尋發問端. 仲尼謂但行汝言, 然後從而知不器在汝. 非謂小人明矣.

이고: 자공은 공자 문인 중에 훌륭한 제자이다. (자공) 스스로가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라 한 용도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을 듣고 질문거리를 찾아서 물었다. 공자는 다만 당신의 말을 실천한 후에 이로부터 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이지, 소인을 말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

▶ [해설] 공안국은 공자가 말한 ‘先行其言, 而後從之’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소인을 미워서 꾸짖는 것으로 보는데, 한유는 이를 공자가 자공을 위해 말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유는 두 장의 경문 즉 ‘子曰君子不器.’와 ‘子貢問君子, 子曰先行其言, 而後從之.’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다. 위의 구절은 군자에 대해 논하고, 아래 문장은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 하나의 맥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고는 한유의 말에 동의하며, 자공은 공자 문인 중에 훌륭한 제자로서 한 용도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기에 뒤에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어 볼 때 공자가 먼저 실천하고 난 뒤에야 따라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대목을 보면 한유와 이고가 『논어필해』에서 대담하게 경문의 순서를 바꾸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의경(疑經) 정신은 송학 형성의

중요한 시작이며, 논어연구의 역사에서도 큰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子張問十世可知也。子曰，殷因於夏禮，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所損益可知也。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

자장이 열 왕조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는지를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법을 따랐기에 그중에 더해진 것이나 감해진 부분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법을 따랐기에 그중에 더해진 것이나 감해진 부분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뒤를 이어 나타나는 왕조가 있다면, 백 왕조 이후의 일이라도 알 수 있다.”

孔曰，文質禮變。馬曰，所因謂三綱五常，所損益謂文質三統。

공안국: 문(文)·질(質)·예(禮)가 변한 것이다. 마응: 인습하고자 한 것은 ‘삼강오상(三綱五常)’을 이르고, 덜고 더한 것은 ‘문질삼통(文質三統)’을 이른다.

韓曰，孔馬皆未詳仲尼從周之意，泛言文質三統，非也。

한유: 공안국과 마응은 모두 공자가 주나라를 따르고자 하는 뜻을 상세히 해석하지 못하였다. 문질삼통 즉 하·상·주의 정사로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틀렸다.

李曰，損益者，盛衰之始也。禮之損益，知時之盛衰。因者，謂時雖變而禮不革也。禮不革，則百世不衰可知焉。窮此深旨，其在周禮乎。

이교: 손익(損益)은 성쇠의 시작이니, 예의 손익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다. 인(因)은 시대가 비록 변화하더라도 예를 변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예가 변하지 않으면 백 왕조 쇠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심오한 뜻을 탐구하자면 주나라의 예에 있지 않는가.

韓曰，後之繼周者，得周禮則盛，失周禮則衰，孰知因之之義，其深矣乎。

한유: 후대에 주나라를 계승한 자가 주나라의 예를 터득하면 성대해지고, 주나라의 예를 잃으면 쇠락한다. 누가 주나라의 예를 인습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알겠는가.

▶ [해설] 고주에서 손익(損益)을 문질삼통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유는 이 해석이 상세하지 않고 개관적이라고 하였다. 이고는 한유의 설에 이어 예의 더해진 것과 감해진 것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왕조의 성쇠가 예에 있다고 해석한다. 또 이고는 그 심오한 뜻이 주나라의 예에 있다고 한다. 이어서 한유는 주나라 예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한유는 주나라의 예를 터득하면 성대해지고, 주나라의 예를 잃으면 쇠락해진다고 설명한다.

이 대목은 한유와 이고가 고주가 깊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여 자기의 의견을 보충 설명한 예이다.

### 3) 八佾第三

○ 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對曰，不能。子曰，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계씨가 여 제사를 태산에서 지냈다. 공자가 염유에게 말하였다. “너는 계씨를 말릴 수 없었는가?” 염유는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아아! 태산을 위한 것은 오히려 임방이 예를 묻는 것보

다 못하는가?”라고 말하였다.

馬曰, 救, 止也. 包曰, 泰山之神, 反不如林放者乎.

마응: ‘구(救)’는 막음의 뜻이다. 포함: 태산의 신령이 임방 만도 못하다고 여긴 것이냐?

韓曰, 謂當作爲字. 言冉有爲泰山非禮, 反不如①林放問禮乎. 包言泰山之神, 非其義也.

한유: ‘謂’자는 마땅히 ‘爲’자이어야 한다. 염유가 태산을 위한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오히려 임방이 예를 묻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포함은 ‘태산의 신령’을 말했는데 그 뜻이 아니다.

#### ① 林放問禮

임방이 앞서 예의 근본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임방이 예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묻자, 공자는 “중요한 물음이다. 예는 사치스럽게 하기보다는 검소한 편이 낫고, 상례는 형식적으로 잘 갖추기보다는 슬픔을 잘 나타내는 것이 낫다.”라고 답하였다.(林放問禮之本, 子曰, 大哉問. 禮, 與其奢也寧儉. 喪, 與其易也寧戚.)

▶ [해설] 한유는 이 문장에서 ‘謂’자가 마땅히 ‘爲’이어야 한다고 경문의 글자를 고쳐서 풀이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은 한유의 독창적인 견해는 당시의 『논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고는 이 문장에 대해 더 이상 주해를 추가하지 않았다.

○ 子曰, 吾不與祭, 如不祭.

공자: 내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包曰, 不自親祭, 使攝者爲之, 不肅敬與不祭同.

포함: 몸소 제사 지낼 수 없어서 대리인을 시켜 제사를 지내면 공경을 다하지 못하여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韓曰, 義連上文禘自既灌而往, 吾不欲觀之矣. 蓋①魯僖公亂昭穆, 祭神如神在, 不可躋而亂也. 故下文云, 吾不與祭, 蓋嘆不在其位, 不得以正此禮矣. 故云如不祭, 言魯逆祀與不祀同焉.

한유: 뜻은 앞 문장 “체 제사에 술을 땅에 부어 신을 내리는 의식 이후에 나는 보고 싶지 않았다”와 연결이 된다. 아마도 노(魯) 희공(僖公)이 부자지간의 차서를 어지럽혀서 제사 지낼 때 마치 신이 와 계시는 것처럼 해야 하며 신주의 차서를 위로 올려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아래 문장에서 ‘오불여제(吾不如祭)’를 하는 것은 아마도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사의 예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을 탄식한 것이다. 그래서 ‘여불제(如不祭)’를 하는 것은 노나라가 제사를 어긋나게 만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다.

李曰, 包既失之, 孔又甚焉. 孔註, 祭神如神在, 謂祭百神, 尤於上下文乖舛.

이교: 포함이 그 요지를 잃었고, 공안국은 더 심하다. 공안국은 ‘제신 여신재(祭神如神在)’에서 ‘백 명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주석하였는데 문장 앞뒤가 모순되다.

① 魯僖公亂昭穆

여기 소목(昭穆)은 차서를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종백대종백(春官宗伯大宗伯)」에서 정현은 “부(父)는 소(昭)이고, 자(子)는 목(穆)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의 소목은 부자간의 차서를 가리킨다.

노 장공(魯莊公)이 두 아들이 있는데 희공(僖公)은 형이지만 서자(庶子)이고, 민공(閔公)은 동생이지만 적자(嫡子)이다. 노 장공이 죽은 뒤 민공이 군자 자리에 올랐고, 민공이 죽은 뒤 희공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비록 희공이 민공보다 나이가 많지만 천자 자리에 오르는 것은 민공이 먼저였다. 그래서 위폐를 세울 때 민공은 희공 앞에 있다. 그러나 희공의 아들인 노 문공(魯文公) 재위 시 대신들이 노 문공의 환심을 얻기 위해 희공의 위폐를 민공 앞에 올렸다. 공자는 이것을 보고 노나라가 제사를 어긋났다고 꾸짖는다.

▶ [해설] 한유와 이고는 이 대목에서 포함과 공안국의 설을 모두 부정하여 설명한다. 고주에서는 공자가 직접 제사를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공경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한유는 노희공이 제사할 때 위폐의 순서를 어지럽혀 노나라가 제사를 어긋나게 만들어 제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고는 한유를 동의하며 포함이 그 요지를 잃었다고 한다.

○ 子貢欲去告朔之餼羊.

자공이 고삭에 희생인 양을 제물로 바치는 예를 없애고자 하였다.

鄭曰, 禮, 人君每月告朔於廟, 有祭謂之[1]廟享.

정현: 예에 임금이 달마다 종묘에 양을 받쳐 제사를 지내니, 이를 묘향(廟享)이라 한다.

[1] 『논어주소』에서 ‘廟’자가 ‘朝’자로 되어있다.

韓曰, 人君謂天子也. 非諸侯通用一禮也. 魯自文公六年閏月不<sup>①</sup>告朔, 猶朝於廟. 左氏曰, 不告朔, 非禮也. 吾謂魯祀周公以天子禮. 魯君每月朔不朝於周, 但朝周公之廟, 因而祭曰廟享. 其實以祭爲重爾. 文公旣不行告朔之享, 而空朝於廟, 是失禮也. 然子貢非不知魯禮之失, 特假<sup>②</sup>餼羊之間, 誠欲質諸聖人以正其禮爾. 又曰天子云聽朝, 謂聽政於天下也. 諸侯云告朔, 謂以下之政告於上也. 每月頒朔於諸侯, 諸侯稟朔奉王命藏祖廟, 於是魯有廟享之文, 他國則亡此禮.

한유: 인군을 천자라고 이른다. 제후들이 통용한 하나의 예가 아니다. 노나라는 문공(文公) 6년부터 윤달에 고삭(告朔)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종묘에 참배를 한다. 『춘추좌전』에서 “고삭을 하지 않으면 예가 아니다.”로 되어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노나라가 주공에 제사를 지내는데 천자의 예로 지냈다. 노나라 임금이 매월 삭날에 주나라를 참배하지 않고 다만 주공의 종묘를 참배한다. 그래서 그 제사를 ‘묘향(廟享)’으로 이른다. 그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시하는 것이다. 문공이 고삭의 묘향을 하지 않고 종묘에 헛되게 참배하지 않은 것은 예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나 자공이 노나라가 예에 어긋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회양(餼羊)의 문제를 빌려 진실로 여러 성인들을 여쭙어서 그 예를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천자가 ‘청조(聽朝)’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정사를 듣는 것을 말한다. 제후들이 고삭을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정사를 윗사람에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매월 삭을 제후에게 나눠 주고, 제후들이 삭을 받아 왕명에 따라 사당에 보존한다. 그래서 노나라는 묘향의 기록이 있고, 다른 나라는 이 예가 없어졌다.

李曰, 襄二十九年春王正月公在楚. 左氏曰, 釋不朝正於廟, 吾謂魯禮正月歲首謂之朝正. 他月卽謂之告朔, 蓋二禮歟.

이고: 양공 29년 봄 정월에 임금이 초(楚)나라에 있다. 『춘추좌전』에서 이를 “임금이 종묘에 제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노나라의 예에서 연초 정월을 ‘조정(朝正)’으로 부르고, 다른 달을 ‘고삭’으로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 예일 것이다.

又曰, 案周禮, 正月之吉, 始和, 布治于邦國都鄙. 蓋當時諸侯皆有稟命告朔明文, 其所無者, 惟朝正不<sup>③</sup>侔周公廟享爾.

또한 『주례』에 의하면 정월의 길함은 처음부터 조화로워 다스림이 서울과 시골에 퍼뜨렸다. 아마도 당시 제후들이 모두 고삭을 받은 명문이 있었을 것이다. 명문이 없는 것은 오직 조정이 주공을 참배한 제사인 묘향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① 告朔

‘고삭(告朔)’은 천자가 매년 겨울에 다음 해의 책력을 제후에게 반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 餼羊

‘희양(餼羊)’은 제사 때 사용하는 양을 가리킨다.

③ 侔

‘모(侔)’는 동등하다이다.

▶ [해설] 이 대목에서 한유와 이고가 고삭(告朔)이라는 제사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 또 묘향(廟享)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유는 이 대목에서 자공이 고삭에 희생인 양을 제물로 바치는 예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에 대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희양(饑羊)의 문제를 빌려 예를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 〈참고문헌〉

- (唐)韓愈 等 撰, 『論語筆解(及其他兩種)』, 北京: 中華書局, 1991.
- (唐)韓愈 著, (日)伊東龜年 校正, 『韓文公論語筆解』, 日本昭和八年刻本.
- (唐)韓愈 撰, (宋)文謙 註, 王儔 補註, 『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唐明貴, 『論語學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 李藝, 「清代女作家林以寧文學創作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金培懿, 「從文獻傳播流變談今本『論語筆解』——以伊東龜年『按刻韓文公論語筆解』所作的考察」, 『中國文哲研究集刊』, 2010.
- 楊國安, 「蜀刻『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文』考論」,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7.
- 陳杏珍, 「宋代蜀刻『經進詳註韓文』與『百家註柳文』」, 『文獻』, 1992.
- 唐繼添, 「『論語筆解』解經特色研究」, 『時代文學』, 2010.
- , 「『論語筆解』的成書背景與語言特色研究」, 『攀枝花學院學報』, 2012.
- 黃愛平, 「『論語筆解』“破注”細探——兼談『論語筆解』思想方法上的創新」, 『遠東通識學報』, 2008.
- 김주옥, 「『논어필해(論語筆解)』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이기운, 「『論語筆解』의 解釋學的 理解」,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The Commentary on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論語筆解

Kim, Juock<sup>\*</sup>

Hanyu 韓愈 and Li'ao 李翱's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論語筆解 is one of the *The Analects* of Confucius's commentaries that doubt the scriptures and refute it. In this book Hanyu and Li'ao alternately talk and interpret the scriptures. And they unravels *The Analects* in the process of doubting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 Not only that they quote the content about xing 性 and dao 道 also this book that opened the beginning of the Song Dynasty Neo-Confucianism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However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ere are not many studies in Korea.

In this paper, I attempt to know the status and impact of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through the commentary. And I hope to be able to use it as a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and useful in analyzing the aspect of Hanyu and Li'ao.

### Key Words

Hanyu, Li'ao, Lunyu Bijie,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논문접수일: 2023. 5. 11, 심사완료일: 2023. 6. 7, 게재확정일: 2023. 6. 30.

<sup>\*</sup>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E-mail : kimjuock@snu.ac.kr